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으나 내 영혼에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해 고통 하는 영들에게! ♡!=이 문서는(전체 문서) 약 3년 정도 사단과 그 사자들과 사투를 벌이면서 반복 재반복과 그리고 되새김질하면서 기록한 문서의 분량이 약 4,000페이지 정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지금 인터넷에 올려놓는 말씀은 전체 문서 중에 주제별로 제목을 붙여 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 영님께서 지혜와 지식이 무한대 이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그 끝은 저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문서는 제 영혼에 성 영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곧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임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의의 평 강한 열매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 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 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그리고 의와 평 강과 희락으로 지배를 받는 그 누구에게도 결코 빼앗기 지도 않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야기이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문서의 글은 사람이 만든 글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사람들은 가히 흥내를 낼 수도 없는 것이며. 성 영님을 의지하지 않고 좇아 살지 않으면 사람들로서는 좇아서 행할 수가 있는 내용의 글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가려져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드러내어 말하지 못했던 성경 말씀의 진주와 보화들이 저에게 성 영님께서 레 마요. 곧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제 믿음을 가르치신 그 진주와 보화들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기록한 문서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서의 글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 영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기에 성 영님께 온유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성 영님을 의지하고 좇아 살면서 인도받고 사모하는 영이 되어야만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 각자 자기 영혼에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이기에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판단을 받는 내용의 글들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문서는 세상 지식의 말도 아니고. 세상 지혜의 말도 아니고. 사람들의 이

성에 맞고 감성에 맞아서 이것이 오르냐. 그르냐를 따지고 묻는 문서의 글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눈길을 끌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흥미를 자극하는 재미있는 글도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고 명예를 꿈꾸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한가해 그 여가를 즐기면서 몸과 마음도 쉴 겸 재미로 읽어도 되는 이야기도 절대로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서는 영이요.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요. 성 영님의 인도와 가르침과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회개하면 영과 혼과 육체가 치료받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마음에는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쉬와 자유로 위로받게 하시고. 보호와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에 생명의 피로 제 영혼이 죄 사함을 받고서 제 영혼에 성 영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곧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임하여 제 영혼이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고 제 영혼이 영생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결단한 예수님의 사람인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성 영님을 의지하고 좇아 살면서 성 영님께서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록한 문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성 영님을 내 영혼에 모시고 그 성 영님께 인도받고 그 성 영님을 의지하고 좇아 살면서 성 영님께 말씀을 가르침 받고 연단을 받아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 있는 평안. 곧 안식 안에 들어 영생하는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영생하는 영원한 참 안식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현대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읽어도 그 영이 구원받지를 못할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고 있어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주님 주 여를 외치고 남발하여 부르짖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 한목숨 주님께 바칩니다. 목청껏 외치는 것이며 교회에서 이름도 내고 직분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꿈꾸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에서 난 박사다. 당회장이다. 노회장이다. 감리사다. 감독이다. 목사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집사다. 강도사다. 전도사다. 하는 등의 직분에 도취하여 자신들이 영적인 빈곤으로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것이며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는 것이요. 직분이나 탐하고. 보존하면서 자기 자리나 지키려 하는 생계형 목사들이요. 직분자들이요.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예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인 기독교를 종교로 끌어 내려 스스로 종교인들이 된 것이었으니. 그래서 이는 곧 하나님의 믿음을 사단의 믿음으로. 그리고 하늘의 믿음을 땅의 믿음으로. 그리고 또 신본의 믿음을 인본의 믿음으로 끌어 내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 영님의 이름인 주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 주 여라는 호칭으로 바꾸고. 감추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스스로 종교인들이 되어 사도 바울이 말씀한 다른 복음을 따르고 가르치는. ♥!=갈라디아서 1장 6절+9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아멘!!! 저주요. 저주를 몰고 다니는 목사요. 교사요. 가장한 의의 일꾼들이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교인들로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맞지 않는 내용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인 숫자나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 끌어모으고 교인 숫자가 자랑이 되어있는 목사들과 교회 건물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놓고서 교회 건물 크기나 자랑하는 그들과도 이 문서의 말씀은 맞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이미 교인 숫자가 자랑이 되어있고. 그리고 교회 건물의 크기가 자랑이 되어있고. 그리고 또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과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 주님 주 여라고 열창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이나 받고. 높임을 받고. 찬사를 받는 위치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는 자들이 되었기에 그들에게는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요. 권세요. 능력이요. 명예요. 영광이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부요함을 축적한 위치인 지라 그것이 우상이요. 절하고 섬기는 신이 되어있는 일이요. 그러므

로 그 힘으로 신을 삼은 자들이요. ♥!=하박국 1장 11절 말씀!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 영님께서도 그런 자들에게는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성경 말씀 원본을 성 영님의 사람들이 우리말로 번역했으면 오류가 없었을 것인데 성경 말씀을 성 영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열심으로 번역하다 보니 그것도 여러 사람이 번역해 같은 내용의 말씀도 성경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제 문서를 읽어보시는 분들에게 개역 한글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개역 한글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야 제가 기록한 문서를 좀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으로 부르는 찬송가를 현대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송가와 예수님의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를 제 문서와 제 믿음에 맞게 153곡을 선정해 개사 중입니다. 제 믿음과 문서와 맞는 찬송가 개사가 완료되면.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올려드리는 찬미의 제사! 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부르는 찬송가로 찬미의 제사를 참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찬송가 가사를 다 외워야 하는 수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다 외워서 부르는 찬송가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 영이신 하나님 앞에 춤추고 뛰놀면서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지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찬미의 제사! 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 ♥!=. 이런 부호와 아라비아 숫자나. 열매의 의미나. 색의 의미와 금. 은. 동의 의미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원제목: 성 영님의 가르침으로 맺는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이란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현대교회에서 제일 많이 참 하나님께 범하는 부활절과 침례식과 외아들과 성찬식과 주일성수와 하나님의 임재와 성 영님을 불이라고 주장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부활절과 침례식과 성찬식과 주일성수와 외아들과 하나님의 임 재에 대한 말씀과 성 영님과 바람과 불과의 관계! 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경 말씀 중에 성령을 왜 성 영님이라고 기록했는가에 대해 궁금하시면 문서 중. ♥!=많은 사람이 걸려있고 걸려 넘어지는 말씀! 이란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려놓았으니 거기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 간절한 마음은 기초부터 알아야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 더 이상 속지 않는 믿음이 되기 때문이며. 그리고 첫 단추부터 잘못되면 모든 일이 헛되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 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서의 말씀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보이고. 그 마음들이 찢리고. 시기심도 생길 것이고. 질투심도 생길 것이고. 두려움도 생겨서 제가 기록한 말씀 들이 그 마음에 거슬 러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일이기때 그들에게는 그 가치도 모르는 것이 며 소중한 줄도 몰라서 그들의 눈은 보아도 보이지도 않고. 들려주 어도 들려지지도 않고. ♥!=이사야 6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 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 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그러므로 그들 스스 로 이 문서의 글을 발로 짓밟아 버리고 물어뜯고 대적할 것이고. ♥!=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그래서 아무런 소용도 없고 그들은 이미 자 신들이 다 된 줄로 알고 있고 다 안다고 생각해 주님께 헌신한다고 가 장한 의의 일군들이 되어서.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 그러므 로 사단의 일군들도 자기를 의의 일군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 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가르치는 자리 에 있는 선생 된 자들이 되었고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되 었기에 성 영님께서도 그들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신 것이었으며 설 혹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성 영님께서서는 그들의 믿음을 가르치시고 도와 세우 실 수는 없으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육신이 죽을까. 하면서 그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그리고 또 무엇을 마시면 좋 을까. 그리고 무엇을 입으면 좋을까. 그리고 또 목숨이 어떻게 될까. 염려에 매여서 목숨이나 연명하고 부지나 하려 들고. 생계나 유지하려 들고. 육신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에게도 맞지 않는 내용들이 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보 단 좋아. 그리고 난 영생은 필요 없어. 그리고 또 난 주님 잘 알아. 그리고 난 주님을 믿으니 괜찮아. 그리고 또 난 주님만 사랑하니 괜찮 아. 그리고 난 하나님을 믿으니 괜찮아. 그리고 또 난 교회 다니면서 주일성수 잘하고 있고. 십일조 빼먹지 않고 잘 내고 있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 잘하고 있으니 괜찮아. 그리고 저거 이단 아냐. 이단 소리를 들을까. 해서 사람들 눈치나 살피고 주의 종이고

사명 자라고 주님 주 여를 남발하면서 주의 종이 되어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이 문서의 말씀이 성 영님의 가르침으로 오른 줄 알고 있지만 이단 소리를 들을까. 해서 그리고 생계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교회에서 추방당할까. 해서. 그리고 교인 숫자 떨어질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의 영광으로 바꾸어. ♥!=로마서 1장 21절+23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보단 사람들이 더 무섭고 두려워서 쉬쉬하면서 할 말 못 하는 비굴한 사람들과도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는 성 영님께서도 함께하실 수가 없으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난 이단 소리 들어도 좋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그 안에 천국이 없어서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형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죽음도 불사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따라가겠다는 각오와 나를 이단이라 한다면 바울처럼 염병이요. 이단의 괴수로.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염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아멘!!! 몰려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한 것 같이 기꺼이 난 이단이 되어서 그 생명의 피로 하늘 아버지에 생명의 뜻을 다 이루시고 내게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내 구주 예수님을 성 영님의 인도와 가르침으로 믿고 의지하고 좇아 살면서 사랑하고. 사모하고. 따라가겠다는 각오로 마음에 결단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마음을 존중하시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의 성 영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은 자를 귀중히 보시고 그를 성전 삼고 계시면서 믿음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문서의 말씀은 광부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금은보화를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육신의 목숨을 담보해 채굴하는 과정으로서 그 금은보화를 찾아서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금은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것으로 소유한 기쁨과 행복의 함성을 목청껏 소리 외친 것으로서 이 문서의 말씀은 광부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는 금은보화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하면서 땅속 깊은 곳을 파헤치고 들어가는 광부의 그 사모하는 마음가짐이 아니면 읽을 수가 없을 것이었으며. 이글은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 그리고 사단과

그 사자들의 방해가 있어 그 사단과 그 무리와 치열한 영적 전투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일이기에 반드시 성 영님을 굳게 의지하고 좇아 살지 않으면 읽으시고 어딘가의 글 문서 속에 들어있는 진주와 보화를 발견하고서 그 기쁨의 함성을 목청껏 외치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지금까지 붙들고 추구하던 세상 영광에 도취해 그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던 그 생각을 버리고 그 세상에서 나와 세상에 대해 못 박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고 자기의 자아와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 영님께 온유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성 영님을 의지하고 좇아 살면서 믿음을 배우고 싶어서 성 영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서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을 알고 싶고.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와 구주 예수님과 보혜사이신 성 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고. 그리고 또 사단의 정체를 알고 싶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 영생. 곧 생명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신구약 66권 성경 겉의 말씀 속에 들어 있는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늘 아버지에 생명의 뜻이요. 곧 레 마요. 곧 영이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죄요. 죄의 원흉이요. 사단의 모든 저주요. 질병이요. 사단의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내 영혼에 성 영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물과 피. ♥!=요한1서 5장 7절+8절 말씀! 증거하는 이는 성영이시니 성영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영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곧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임하여 내 영혼이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되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게 하여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와 내 영혼이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되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게 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얻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심 영이요. 세상에 대해 가난하여 거룩한 심 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성 영님께서 함께하시면서 기름 부음의 가르침으로 읽어들 수가 있고. 자기 영혼에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신영 한 젖이요. 생명 양식과 신영 한 음료인 생명의 생수가 되어서 내 영혼이 새롭게. 새롭게 변하고 내 영혼이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고서 성 영님께 가르침과 연단 받아 믿음이 성장하고. 새 힘을 얻고. 생명의 열매들로 결실하여 이 하늘과 땅에서 의의 평 강한 열매와 의와 평 강과 희락으로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영혼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룰 수가 있는 내용 들이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문서는 심 영이 가난해. 곧 세상에 대해 가난하지만. 내 영혼에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없고 내 영혼에 가진 것 없는 심 영의 가난이요. 그래서 내 영혼이 굶주림과 갈증과 갈급하면서도 말씀의 신영 한 젖이요. 생명 양식과 신영 한 음료인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채움을 받지 못해 내 영혼이 주리고 목말라 유리방향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과 예수님을 믿어도 그 안에 예수님께서 성 영님으로 오시지 못해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없고 평안함으로 지배를 받는 안식.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생명 안에 있는 평안함과 사랑과 그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자유와 든든함과 당당함과 여유와 그 맛도 몰라서 삶이 어둡고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매여 이 하늘과 땅에서는 거처할 곳과 머리를 둘 곳이 없어 유리방향하는 그 영혼들은 꼭 읽어보셔야 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문서는 예수님을 약 30년 정도 믿고 열심으로는 전도하기 위해 전국에 도시들과 고속도로가 제 것 인양 활동하던 저이었으나 정작 제 영혼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지배받으면서 누리는 영이 영생하는 생명도. 평안도. 안식도. 기쁨도. 행복도. 즐거움도. 그 맛도. 자유도. 든든함도. 당당함도. 여유도 모르고 유리방향하는 영혼으로서 매 순간 60여 년 동안 삶의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추구하던 그 모든 세상 영광과 부요함과 풍족함과 거짓 믿음과 신앙과 위선의 탈을 벗고 그 길에서 과감하게 유턴해 회개하였고. 그리고 세상과는 단절했고. 그리고 또 그 세상에서 나왔고. 그리고 세상 소리 다 문 닫고 성 영님을 의지하고 좇아 성

영님과 독대하면서 곧 친구약 66권 성경 겉의 말씀 속에 들어 있는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늘 아버지에 생명의 뜻이요. 곧 레마요. 곧 영이요. 생명이요. 죄요. 죄의 원흉이요. 사단의 모든 저주요. 질병이요. 사단의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내 영혼에 성 영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물과 피. 곧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임하여 내 영혼이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되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게 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 영님께 믿음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아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고 내 영혼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 이 하늘과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영혼에 이루어지고. 누리고. 지배받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평안함과 사랑과 맛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자유요. 당당함과 든든함이요. 여유와 곧 안식이 내 영혼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져서 내 영혼에 의의 평강한 열매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 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으로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까지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과정을 기록한 문서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문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약 30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여 따른다고는 했지만 정작 내 영혼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생하는 생명도. 평안함도. 안식도. 행복도. 기쁨도. 맛도. 즐거움도. 자유도. 든든함도. 당당함도 여유도 모르면서 열심만으로 만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 위선의 탈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 길에서 유턴하여서 회개하였고 성 영님을 의지하고 좇아 살면서 예수님의 승리가 내 영혼의 승리가 되어서 승리를 목청껏 외친 승리의 함성이요. 메아리요. 노래요. 내 영혼의 찬송을 목청껏 외친 문서들이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몇 년 정도 경제 활동을 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몇 년 정도 경제 활동을 했다면 약 1억_2억 정도는 모았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 적 부요함과 풍성함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영혼에 이룬 일은 온 천하를 다해도 살수도. 얻을 수도. 그리고 빼앗기지 않

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 영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영혼에 이루어졌기에 이 하늘과 땅을 다 준다 해도 저는 배설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 영이신 참 하나님을 아버지와 구주와 보혜사로 만나 성 영님의 인도와 가르침과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회개하면 영과 혼과 육체가 치료받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마음에는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쉼과 자유로 위로받게 하시고. 보호와 연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 내 영혼이 의의 평 강한 열매와 의와 평 강과 희락으로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영혼에 이루어져 안식하기까지의 과정들이요. 제가 목청껏 외친 승리의 외침 소리를 기록한 문서들로서 살인적 육체와 마음에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한 그 기도 속에 레 마요. 곧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였고. 가르치시는 것을 처음에는 연필로 받아 적은 수 천장의 내용들을. (그 당시에 성 영님께서 제 영혼에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생명의 생수로 부어주시고 물밀듯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제 컴퓨터 타자 실력으로는 소화할 수가 없어 연필로 기록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컴퓨터로 다시 문서화시키면서 제 영혼에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의의 평 강한 열매와 성 영님 안에서 의와 평 강과 희락으로 지배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기록한 내용들이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른 일이지만 아직도 자기 영혼에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 있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죄 짐에 눌려 그 영혼이 쉬지를 못해 영적인 갈 함과 주리고 목말라 유리방황하시는 분들이 이 문서의 내용 들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찾으시고. ♥!=시편 42장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여 읽으시되 회개할 일은 회개하면서 삶에 적용하신다면 그들에게는 목마른 영혼에 단비와도 같아서 그 영혼이 생수의 강을 이루는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자기 영혼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져 성 영님께서 먹여주시는 생명의 꿀과 신영 한 젓이요. 생명의 양식과 신영 한 음료인 생명의 생수를 자기 영혼이 받아 마셔 배부름으로 만족하여 날마다 내 영혼이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그 기쁨과 행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여 섬기고 입술에 말의 찬양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찬양과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죄를 용서하시고 영이 영생하는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신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르고 역시 입술에 말의 찬양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었으며. 그리고 내 영에 예수님의 이름. 곧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임하여 내 영이 되었고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연단해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로 결실하게 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들로 다시 나게 하신 보혜사 성 영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따르고 역시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찬양을 목청껏 소리 높여 외치면서 감사로 올려드릴 수가 있을 것이었으며. 이 하늘과 땅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기업이요.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선물로 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 영 하나님의 이름인 주 예수님이시라는 그 이름과.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불사르게 내주실 수가 있으실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행복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누가 말을 해주지 않아도 자기 영혼 속에서 스스로 알게 되어 그 감사와 감동과 감격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외침 소리가 내 영혼 속에서부터 입 밖으로 목청껏 외치고 나올 것이며 세상과 세상 교회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안타까움과 예수님의 눈물과 성 영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기꺼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 성 영님의 인도를 받아 내어드릴 수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멘!!! ! 그러나 결코 나도 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도 한번 해보지 뭐. 하는 이런 생각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

멘!!! 그리고 또 흥내를 내는 일은 시험하는 일이니 전혀 어울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분명 사랑을 하고 있고. 사모하고는 있는데 내 영혼에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없어 영적인 생명이 같 하고 목마름으로 주리고 목말라 예수님을 믿는 자의 생명과 평안과 맛도 모르고 있고. 행복과 그 희락의 기쁨과 자유와 당당함과 든든함과 여유와 즐거움을 몰라서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과 내 영혼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하게 사모함이 있는 영혼들과 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영으로 알고 싶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따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그동안 추구하던 세상 영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던 그 길을 과감하게 유턴하고. 그리고 그동안 세상을 따르던 것을 회개하시고 우리 믿음에 절대적 이신 성 영님만 의지하고 좇아 살면서 친구약 66권 성경 걸의 말씀 속에 들어 있는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늘 아버지에 생명의 뜻이요. 곧 친구약 66권 성경 걸의 말씀 속에 들어 있는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늘 아버지에 생명의 뜻이요. 곧 레 마요. 곧 영이요. 생명이요. 죄요. 죄의 원흉이요. 사단의 모든 저주요. 질병이요. 사단의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내 영혼에 성 영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물과 피. 곧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임하여 내 영혼이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되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게 하여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성 영님께 배우면서 다시 믿음을 세우시겠다는 각오와 나를 죽이시면 죽겠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성 영님께 온유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신다면 성 영님께서 그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기에 성 영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연단하시고. 믿음을 도와 세워 내 영혼이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고 점점 더 풍성하게 얻게 하여 이 하늘과 땅에서의와 평 강과 희락으로 지배를 받는 하나님에 나라의 안식이 내 영혼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 영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내 영혼이 그 기쁨과 행복함에 내 아버지와 내 구주 예수님과 내 보혜사 성 영님을 입술 말의 찬양이 아니라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감동과 감격함으로 솟아오르는 승리를 목청껏 외치는 내 영혼의 찬양이 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글을 성 영님께서 제 입술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단속하시면서 레 마요. 곧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제 믿

음을 가르칠 즈음 저에게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몰라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갑자기 임한 고통 속에 어머니와 저녁밥 먹고 쇼 파에 앉아 있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이겨내야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분명하고도 선명한 음성이 들렸던 일이고. 그리고 꿈속에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 너는 어렵다고 말했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네피림. 곧 사단을 상징하는 네피림의 그 크기가 무려 아파트 1층_2층 정도 되는 뽀뽀 대머리가 그 육중한 팔로 제 목살을 움켜쥐고 누가 이글을 기록하라고 했느냐고 그것도 두 번이나 꿈속에 나타나 업포를 주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네피림과 네피림 후손에 대해 확실한 경험으로 이해했으며 그러므로 ♥!=네피림에 대하여! 이란 제목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당시엔 그 의미를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약 10년 정도 그 끝도 모르는 죽음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꿈속에 흰옷 입은 사람이 왜 너는 어렵다는 한 말의 의미와 이겨내야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 하늘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네게 누가 이글을 기록하게 했느냐고 업포를 주었던 사단을 상징하는 뽀뽀 대머리 네피림에 대해 잘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들이 왜 뽀뽀 인 줄도 경험으로 알게 되었는데 머리. 곧 머리카락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를 말씀하는 일ियो.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아멘!!! 그래서 중들은 십자가를 꺾은 마크를 자신들의 종교를 표시하는 깃발로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의 피 흘러 죽음을 맞으신 일과 다시 사신 일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집단인데 그 절에 있는 중들이 부처상에 밥상 차려 놓고 밥 먹는 시간. 곧 11시-1시 사이를 임 재라고 말하는 일인데 현대교회의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두려운 줄도 모르고 거침없고 서슴없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성 영님께서 임재하셨다. 라고 목소리 높이면서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속이 불붙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동안 온몸에 진액을 빼는 고통 속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매일 매 일이 죽음의 문턱이요. 주리를 틀듯한 고통 속이요. 사단과 그 사자들과 벌이는 사투요. 혈투요. 혈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도우시는 성 영님께서 함께하시니 모든 일을 견디고. 참고. 이기고. 감수하고. 감당하고. 감내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

습니다. 아멘!!!)